

목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하박국 2:4-5상반

김상기*

1. 들어가는 말

하박국은 작은 책이지만 쿨란 제1 동굴에서 나온 하박국 주석서(1QpHab)나 신약성서의 인용들이¹⁾ 보여주는 것처럼 초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2:4b가 그렇다. 랍비 심라이(Simlai)는 성서의 책들이 율법 전체를 어떻게 집약시키고 있는가를 다루면서 랍비 나흐만 바르 이츠하크(Nachman bar Yitzchak)의 말을 빌어 하박국은 성서의 율법 전체를 하박국 2:4b 위에 세웠다(he'emidan: ymd, hi)고 말한다(Makkot 24a). 그만큼 하박국 2:4b의 의미는 높게 평가되었고, 이 구절은 또한 바울 신학의 중요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롬 1:17 참조).

그렇지만 후대의 이해들이나 인용들이 2:4b와 관련하여 하나의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치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칠십인역은 אֱמִידָנָה의 3인칭 어미대명사 “’를 일인칭으로 고쳐 읽고²⁾ 로마서 1:17은 인칭 대명사 접미사를 생략하고 있다. 또한 ‘אֱמִידָנָה’는 믿음 또는 신실함으로 옮겨지고 있다.³⁾

*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소속 없음. kimsk54@hotmail.com.

1) 행 13:41; 20:9; 롬 1:17; 갈 3:11; 히 10:38, 또한 눅 1:47과 벰후 3:9도 참조.

2) 나할 헤베르에서 발견된 B.C. 1세기-C.E. 1세기의 소예언서 그리스어 역본 8Hev XII gr은 다시 3인칭으로 고쳐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B. Ego, et al., eds, *Biblia Qumranica: Volume 3B: Minor Prophets* (Leiden: Brill 2005), 127-139, 특히 132 참조.

3) 현재 אֱמִידָנָה는 ‘그의 믿음으로’(『개역개정』, 『새번역』, KJV, NAS, ESV) 또는 ‘그의 신실함으로’(『공동』, NIV, GNB, TNK, NET, YLT) 서로 다르게 옮겨지고 있다. 그런데 אֱמִידָנָה는 기본

이처럼 4b절이 서로 다르게 이해되는 까닭은 본문 그 자체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1-3절과의 관련이 분명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다. 1-3절과 4b절의 연결고리를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데 1-3절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2b절의 **לִמְעַן יִרְוֶה קוֹרָא**가 모호하다. 주어가 불확실하고 **קוֹרָא**로 시작되는 4a절은 난해할 뿐만 아니라 1-3절과의 관련성도 모호하게 만든다. 이것들의 의미가 적절하게 밝혀지고, 1-3절과 4절의 연결고리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으면 이 구절들은 일관성 있는 단락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고, 4a절과 4b절의 의미와 기능도 그 문맥 안에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문법적 연결 가능성은 인칭 대명사 접미사 또는 어휘장(場)을 형성하는 낱말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에 주목해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4절을 포함하는 단락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5절 첫머리의 **כִּי יִשָּׂא**가 4절과의 연관을 시사하는 데도 이 구절 전체가 난해한 탓에 단락의 경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2:1-4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견해들과 달리⁴⁾ 이 단락의 경계가 4절을 넘어간다면 어디까지인지가 밝혀져야 하박국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이 단락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난해한 어구들과 구절들의 가능한 의미와 인칭 대명사 접미사들의 지시 관계 그리고 낱말들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그 단락의 구조를 통해 4절 이하의 의미와 기능을 드러내고자 한다.

2. 단락의 경계

현재의 2:1과 1:12-17은 모두 1인칭 발언이라는 점에서 연속적이다. 후자

적으로 steadfastness, trustworthiness, faithfulness, honesty 등을 의미한다(HALOT, 62R-63L 참조). 대하 31:12에서 인칭 대명사 접미사 없이 사용된 이 전치사 어구는 ‘정직하게’를 뜻한다.

4) 이에 대해서는 W. Dietrich, *Nahum Habakuk Zefanja*, IEKAT (Stuttgart: Kohlhammer, 2014); E. Achtemeier, *Nahum-Malachi*,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Th. E.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Obadiah, Jonah, Micah, Nahum, and Habakkuk*, An Exege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M.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2,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등 참조.

반면에 J. M. O'Brien, ed., *The Oxford Handbooks of the Minor Prophets* (N.Y.: Oxford Uni. Press, 2021), 490; O. P. Robertson,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67 이하; M. H. Floyd, *Minor Prophets: Part 2*, FOTL 22 (Grand Rapids: Eerdmans, 2000), 122-123; R. L. Smith,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1984), 105 이하; 노세영, 『나훔, 하박국, 스바냐』,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2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19 이하 등은 1-5절을 한 단락으로 본다.

는 정복자와 악인과 관련하여 야훼에게 하는 탄식과 질문이고, 전자는 그에 대한 야훼의 응답을 지켜보겠다고 자신에게 말하는 발언으로 예언자의 의지를 표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성은 2:2 이하가 의인과 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진다. 2:2 이하의 의인과 악인을 다루는 1:1-4와 오히려 가깝고, 1:12-17에서는 13절과만 공통적이다.⁵⁾ 편집의 결과인 이러한 본문상황은 1:12-17*과 2:1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1:17과 2:1 사이에 양자를 연결시키는 문법적 장치가 없고 1:14-17이 abba 구조의 닫힌 단락이라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2:1에서 발화 대상과 내용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2:1에서 시작된 단락은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5ba절 첫머리의 וְאַתָּה 는 기능이 모호하고, 5a절과 문법적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text{וְאַתָּה...וְאַתָּה}$ 는 ‘...하는 자 곧 그는...’(he who...)으로 옮길 수 있다.⁶⁾ ‘그’는 탐욕이 끝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누구인가? וְאַתָּה 절 자체만 놓고 보면, 그는 탐욕스런 한 개인 또는 지배계층을 풍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5bβγ절에는 1:17에 언급된 민족들(עַמֵּי)이 다시 언급된다

5) 1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한 악인들 부분과 정복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4절 악인들에 대한 탄식

5-10절 야훼의 갈대아 도래 경고(1-4절의 탄식에 대한 응답, 청중은 복수 2인칭으로 언급됨)

11절 경고 실현과 새로운 상황 전개

12절 정복자에 대한 탄식

13절 악인들에 대한 탄식

14-17절 정복자에 대한 탄식

1-4절에 이어 읽을 수 있는 13절은 1-4절의 탄식이 5-10절의 응답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시작되는 피정복 상황에서도 계속됨을 나타낸다. 11절과 3인칭 남성 단수 어미 대명사를 공유하는 12절은 정복자로 인한 11절의 새로운 상황에 이어지고, 14절은 15-16절을 준비하고 17절로 계속된다. 이러한 본문 상황은 12-14절이 야훼를 2인칭으로 부르는 것에 근거하여 이를 동일한 층으로 분류하는 W. Dietrich, *Nahum Habakuk Zefanja*, 137-138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현재의 12-17절은 악인들에 의한 고통과 정복자들에 의한 고난이 중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M. A. Sweeny, “Structure, Genre, and Intent in the Book of Habakkuk”, *VT* 41 (1991), 66-68은 1:2-4의 탄식과 1:5-11의 예언의 관계를 탄식과 응답이 아니라 탄식과 원인의 관계로 본다. 그러나 이는 2-4절의 탄식 대상이 다른 민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받을 수 없는 주장이다.

6) W. H. Brownlee, “The Placarded Revelation of Habakkuk”, *JBL* 82 (1963), 319-325; A. Deissler, *Zwölf Propheten II. Obadja, Jona, Micha, Nahum, Habakuk*,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4/1986), 226은 5절을 하나님의 통치에 내재하는 법(4절)을 신바빌론에 특별히 적용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6a절의 풍자와 조롱이 특히 신바빌론을 겨냥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כָּל־הַעֲמִים/כָּל־הַגּוֹיִם). 이는 그가 1:1-4, 13; 2:1-4에 나오는 부류의 악인이나 5a절의 술과 관련된 자가 아니라 정복자임을 알려준다. 따라서 5b절은 5a절을 직접 잇는 것일 수 없다.⁷⁾ 5a절과 5b절의 이같은 차이는 5a절 끝의 לֹא יָגִיד (그는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⁸⁾가 진술을 마감하는 일종의 휴지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뚜렷해진다.⁹⁾ 게다가 2:2 이하는 저주/화를 선언하는 2:6b 이하와 성격이 다르다. 5a절의 형식이 6b절 이하의 저주선언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הוֹי가 없기 때문에 그와 구분된다.¹⁰⁾ 그러면 5a절은 현재 1절에서 시작되는 단락을 닫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¹¹⁾

5a절 첫머리의 כִּי אֵף는 ‘참으로’ 또는 ‘더욱이, 하물며’ 등을 뜻하고, 접속사 ו 함께 앞 절과의 연관성을 추정케 한다.¹²⁾ 4b절과 5a절이 서로 대비되는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접속사 ו는 역접으로 이해된다. 이는 4b절 הָיָה와 5a절 לֹא יָגִיד의 대비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면 כִּי אֵף의 뉘앙스는 의인도 בְּאִמּוֹנָתוֹ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하물며...’가 될 것이다. 4b절과 5a절의 이러한 대비는 이 구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확정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단지 그 가능성을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7) R. L. Smith, *Micah-Malachi*, 95, 108은 5a절에서 5b절로의 이행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하면서도 5b절이 5a절의 ‘교만한 사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낫다고 하며 2:1-5를 한 단락으로 읽는다.

8) הָיָה가 목표에 이르다, 성과를 거두다, 결과를 얻다 등의 의미를 가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HALOT, 678R 참조.

9) G. Prinsloo, “Habakkuk 2:5a: Denouncing ‘wine’ or ‘wealth’? Contextual readings of the Masoretic text and 1QpHab”,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2:4 (2016), 2 accessed 25 January 2024 from <https://doi.org/10.4102.hts.v72i4.3576> 비교. G. M. O’Neal, *Interpreting Habakkuk as Scripture: An Application of the Canonical Approach of Brevard S. Childs*, SBL 9 (New York: Peter Lang, 2007), 92는 5절 전체가 다음 단락과 더 잘 어울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G. Prinsloo, “Habakkuk 2:5a”는 2:1-8을 한 단락으로 보는 다수의 고대사본들과 달리 일부 사본들은 2:1-8을 2:1-4와 2:5-8의 두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6b-17절에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정복자에 대한 심판선언과 약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는 이스라엘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에 대한 저주(וֹי)-선언이 교대로 나온다. 정복자 본문들은 1:11-17*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고, 내부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에 관한 본문들(2:6b-7, 9, 10abβ, 11, 12, 15-16)은 1:1-4, 13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다. 6b, 9, 12, 15절은 정복자 본문들에는 없는 וֹי를 포함하고 있다. 6b-17절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본문들이 편집된 결과이다. W. Dietrich, *Nahum Habakuk Zefanja*, 159는 이와 비슷하게 본문들을 구별하지만 5절에 וֹי를 첨가한다.

11) 6b절은 동사가 단수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6a절과 구분된다. 6a절은 그 주어인 ‘이들 모두’가 5b절의 ‘모든 민족들’과 ‘모든 백성’들을 가리킬 것이므로 5b절에 이어진다.

12) F. I. Anderson, *Habakkuk: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5 (New York: Doubleday, 2001), 216-217 참조.

이렇게 읽으면 4b절을 포함한 2:1-5a가 한 단락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이 단락은 하박국과 관련된 1-3절과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관련된 4-5a절로 나뉜다. 4-5a절의 진술들은 야훼가 하박국에게 ‘기다리라’(חַכְּה)고 하는 3ba 절의 명령과 형식상 구별된다. 그렇지만 4-5a절의 사람들이 2절의 כּוֹרְאָה와 연관되고, 뒤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주어로 하는 וְיָנִיחַ는 5a절의 וְיָנִיחַ와 서로 짝을 이룬다. 따라서 2-3절과 4-5a절은 모두 묵시에 대한 있을 수 있는 반응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양자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다.

1절이 야훼의 응답을 촉구하는 하박국의 의지를 다룬다면, 2-5a절은 야훼의 응답이지만 응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단지 묵시(וְיָנִיחַ)라는 말로만 언급한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반응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묵시라는 말이 이 단락의 중심을 이룬다.

3. 2:1-5a의 번역과 구조

이렇게 구분된 2:1-5a가 통일된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지는 인칭 대명사 접미사의 지시관계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이에 주목하면서 번역하고 위에 언급된 본문의 난해한 요소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3.1. 2:1-5a 번역

(2:1) 나는 내 초소 위에 서리라. 성벽 망루 위에 자리 잡고 지켜보리라.¹⁴⁾ 그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또 내가(1) 내 항변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볼 것이다.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로 자기 초소 곧 성벽 망루를 특정하지만, 그것은 실제 장소가 아니다.¹⁵⁾ 이것은 마치 파수꾼이

13) J. A. Emerton, “The Textual and Linguistic Problems of Habakkuk II.4-5”, *JTS* 28:1 (1977), 1-18, 특히 1-3쪽은 다른 이유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는 5b절을 5a절에 읽으려고 하지만 설득력은 없다. 5a절과 5b절을 나눈 사람으로 Humbert를 드는데(3쪽), 그의 글에 접근할 수 없어 어떤 근거로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유감스럽게도 알 수 없다. 그는 또한 6절이 5절을 전제한다고 하지만, 6절은 실제로 5b절을 전제할 뿐이다.

14) 1절의 아트나흐는 עַל-מִצְדָּה 아래 있지만, 위의 번역에서 그것은 וְיָנִיחַ 아래로 옮겨져 있다. לְ-부정사 וְיָנִיחַ는 목적을 나타내고, ‘…서고 …자리 잡고 … 지켜보는’ 일련의 행위들 전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15) 야훼는 성전에 계시다는 2:20의 진술을 토대로 하박국의 초소를 성소에서 찾은 것도 무의

자기 초소 곧 성벽 망루에서 소식을 갖고 달려오는 전령을 초조히 기다리며 긴장해서 전방을 살피는 것처럼 그 자신도 그토록 절박하게 야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사 21:6-9 비교).¹⁶⁾

BHS의 비평장치는 MT의 두 번째 **מָה** 질문 **יָשִׁיב מָה**를 **מָה**로 고쳐 읽을 것을 제안한다.¹⁷⁾ 이렇게 읽으면, 그것은 앞의 **מָה** 질문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 셈이다. 이것은 물론 가능한 독법이지만, MT 본문은 그대로 읽어도 현재 문맥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¹⁸⁾ 그것은 야훼의 답변에 따라 하박국이 자신의 항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이로써 경우에 따라 자신의 입장이 철회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읍 42:5-6 비교). 따라서 본문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¹⁹⁾

(2:2) 야훼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되 판에 분명하게 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

1장에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오랜 외침에도 침묵하였지만, 그는 지금 ‘파수꾼’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다. 본문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보도한다.

פִּי(pi)는 ‘해명하다 또는 설명하다’를 뜻한다. 그런데 그 말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어구 ‘판들 위에’(עַל-הַלְּחֹת)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분명하게 쓰다’로 옮길 수 있다.²⁰⁾ 또 그때에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읽는 자’(קוֹרֵא בִּי)

미한 일이다. 그것은 우상을 찾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박국의 묵시와 그 실현을 보장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16) M. A. Sweeney, *Reading Prophetic Books: Form, Intertextuality, and Reception in Prophetic and Post-biblical Literature* (Tübingen: Mohr-Siebeck, 2014), 292는 사 21:1-10과 대하 7:6; 8:14; 35:2 등을 결합시켜 하박국이 성전과 관련되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수 있다고 추정하지만, 이사야 본문은 군사적 의미만 갖기 때문에, 그러한 추정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17) 고대 사본이나 역본 가운데 그렇게 읽는 것은 현재까지 시리아 페쉬타 역본이 유일하다. 그것은 이를 분사형 mtib로 고쳐 읽고, li를 첨가함으로써 주어와 3인칭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MT 본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역자가 본문을 변경한 결과다.

18) M. A. Sweeney, *Reading Prophetic Books*, 292-293은 읍 13:6; 23:4에 근거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W. H. Brownlee, *The Midrash Peshar of Habakkuk*, MSSBL 20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107-108은 ‘나에 대한 그의 책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 없는 문맥을 가정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그 말은 1:1-4에 비취를 때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R. D. Haak, *Habakkuk*, VTS 44 (Leiden: Brill, 1992), 24, 54-55는 잠 29:1을 근거로 이를 my prosecutor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 본문은 단순히 הוֹכְחֹתָ가 아니라 הוֹכְחֹתָ אֱשׁ를 말하고 있어서 그것은 여기의 הוֹכְחֹתָ를 my prosecutor로 옮길 전거가 되지 않는다.

19)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구약사상문고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77, 83도 동일한 입장이다.

20) 신 27:8에도 פִּי(pi)는 פִּתְּחָה와 함께 나오고 있다.

라는 말이 의미 있게 된다.²¹⁾

이를 아카드어 텍스트에 근거하여 ‘확인하다’(confirm)의 의미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없다.²²⁾

inūma [tuppum] … inezbu balum šībū ina nīš ilim ū-bi-ir-ru iššaṭir,
inanna šībū ina nīš ilim li-bi-ir-ru-šu (PBS 5 100, i, 32 & 34)²³⁾

[문서가] … 작성되었을 때 증인들이 신의 삶으로 (맹세하며) 사실임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이 기록되었(으면), 지금 증인들이 신의 삶으로 (맹세하고) 그것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בָּאֵר의 어원으로 간주되는 아카드어 bāru의 D-Stamm은 ‘(시련, 맹세, 증인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진짜 법적 상황 곧 사실을 확정하다’는 뜻을 갖는다.²⁴⁾ 그러나 이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위의 아카드어 본문에서 문서 기록자와 증인은 같지 않다. 반면에 여기서 בָּאֵר(pi)는 기록자인 예언자에게 명령된 행위이다. 기록자 자신이 문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위의 아카드어 본문에 의거한 בָּאֵר 해석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וְיָרֵץ יְרֵץ קִרְיָא בּוֹ לְמַעַן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²⁵⁾ 이것은 그 말의 문맥과 문법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분사 구문인 קִרְיָא בּוֹ는 주어로 이해되어야 한다.²⁶⁾ יָרֵץ는 예레미야 23:21; 스가랴 2:4[8]와 비교하여 선포를 위한 행동으로 이해되고, 이에 따라 קִרְיָא는 전령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²⁷⁾ 예레미야 23:19에서는

21) בָּאֵר에 대해서는 HALOT, 1130L 참조.

22) J. W. Haring, “»He will certainly not hesitate, Wait for him!«, Evidence for an unrecognized oath in Habakkuk 2,3b,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preting Habakkuk 2,2-4”, ZAW 126 (2014), 375-376.

23) CAD B, 129L. »When the written testimony was made out, it was written without witnesses having confirmed it by oath; now let witnesses under oath (also) confirm it«

24) AHw, 108R-109L은 bāru D의 의미를 ‘설명하다, 증명하다’로 제시한다(HALOT, 106도 이를 따른다). CAD B 125R, 127R은 이를 좀더 세밀하게 위와 같이 풀이한다.

25) 『개역개정』, 『세번역』, 『공동』, EU, NET, NRS, JPS 등.

26)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78-80은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주어를 동사로 해석하고, 이를 위해 동사 יָרֵץ를 부사로 바꾼다. 이것은 그 가능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27) NET는 ‘그것을 알리는 자’로 옮긴다. NIV와 NRS는 קִרְיָא를 전령으로 옮기고 בּוֹ는 동사 יָרֵץ와 연관시켜 ‘그것을 가지고’로 새긴다. I. Schaper, “Exilic and Post-Exilic Prophecy and the Orality/Literacy Problem”, VT 55 (2005), 324-342, 333; J. W. Haring, “»He will certainly not hesitate, Wait for him!«, 379; O. P. Robertson, *The Book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169-170; 노세영, 『나훔, 하박국, 스바냐』, 227 등 참조.

‘달려가다’가 ‘예언하다’와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그 문맥에서 선포를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와 평행으로 사용된 낱말이 없다. 따라서 문맥의 차이를 무시하고 그와 같은 קָרָא 이해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적절치 않다. קָרָא가 예언자의 메시지를 ‘읽은’ 사람이 전령으로 활동하는 것을 나타내는지는 더더욱 확실하지 않다. x-גּ אָרָא는 x를 ‘읽다’ 또는 낱앙스를 달리 하여 ‘낭독하다’로 옮겨질 수 있지만,²⁸⁾ 여기서는 신명기 17:19에서처럼 단순히 ‘x를 읽다’는 말로 이해된다.²⁹⁾ 사람들 앞에서 낭독하다를 뜻하는 것인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구의 존재 또는 문맥으로부터 알 수 있다(렘 36:6, 8, 10, 13-14; 느 8:3, 8, 18; 9:3; 대하 34:18). 이러한 해석 상황에서 그가 어디로 달려가는지가 3절 이하 본문 안에서 추론에 불과할지라도 의미 있게 밝혀질 수 있다면, 그 밖의 다른 추정들은 불필요해질 것이다.

(2:3) 그렇다. 이 묵시는 아직 (오지 않은) 정한 때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끝을 향해 서둘러 가고³⁰⁾ 불발되지(=숙이지) 않을 것이다.³¹⁾ 그것이 지체된다 해도³²⁾ 기다려라. 그것은 반드시 오고 늦지 않을 것이다.

28) HALOT, 1130L.

29) KJV, NAS, ESV 등 비교.

30) 각주 32 참조. קָרָא는 I ‘(산들 바람이) 불다(q), (냄새 등이) 퍼지다(hi), 내뿜다(hi) II 증언하다를 뜻한다(HALOT, 916-917 참조). 1QpHab는 קָרָא를 PKLF(긴 미완료형)인 קָרָא로 고쳐 읽고, LXX는 καὶ ἀνατελεῖ(그리고 일어나다)로 옮긴다.

그런데 קָרָא는 잠언의 여러 구절들에서 קָרָא와 평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잠 6:19; 12:17; 14:5, 25; 19:5, 9; 또한 시 27:12도 참조), 그 용법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D. Pardee, “YPH “witness” in Hebrew and Ugaritic”, VT 28 [1978], 204-213, 특히 209-210).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낱말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의미가 있으나 합 2:3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논의들은 하박국 본문 이해에 직접 관련될 시 12:6을 배제함으로써 적합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MT의 קָרָא는 we-PKLF 형태(짧은 미완료 또는 Jussive)로서 묵시 실현과 관련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F. F. Bruce, *Habakkuk*, 859, Th. E. McComiskey, ed., *The Minor Prophets* 참조.) 그 목적어 קָרָא는 ‘끝’을 의미하며 그 묵시의 실현을 함축한다.

31) HALOT, 467-468은 여기의 כִּזְבּוּ(pi)를 ‘거짓말하다’(lie)로 분류하지만, ‘deceive, fail’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적합하다.

32) קָרָא וְאַתָּה אֵלֹהִים는 조건절이나 맹세문으로 읽을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J. W. Haring, “»He will certainly not hesitate, Wait for him!«,” 372-382 참조. 그는 אֵלֹהִים-문장을 이 구절 끝의 ‘(그 때는) 늦지 않을 것이다’와 대비시키고 양자를 모순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맹세문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겔 33:11을 제시한다.

그러나 אֵלֹהִים-문장을 양보절로 읽는 경우 그것은 지체될 가능성을 의미한다기보다 설령 늦는다 해도 꼭 올 것이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양보는 말하는 자 편에서 묵시 실현이 늦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듣는 자의 인내를 요구한다면, 맹세문은 듣는 자에게 묵시 실현의 지체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전제하고 듣는 자의 안심을 목표한다. 그러나 말하는 자의 의도는 동일하다. 그 의도는 ‘정한 때’(מָוֶן)가 반드시 도래하

기록하고 쓰라는 2절의 명령 다음에 묵시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지만,³³⁾ 그것이 무엇인지는 바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묵시의 때(מועד)가 עד(아직)라는 말과 함께 나온다. וְיָבִיאָ וְעַד가 자주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따라 ועד를 עד로 고쳐 읽으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방법론적 결함 때문에 본문 이해에 아무런 인식론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다.³⁴⁾ 묵시를 의인화하는 것이 본문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을 때 그 이하의 진술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에 본문변경은 불필요하다.

וְיָבִיאָ(hi)+⁵-전치사 어구는 시 12:5[6]에서처럼 ‘갈망하다(pant for)’의 의미로 이해되지만, 뒤에 나오는 וְיָבִיאָ וְעַד에 비취볼 때 ‘서둘러 가다, 재촉하다’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³⁵⁾

3b α 절의 … 기다리라는 명령은 3a α 의 … 서둘러 가다의 논리적 결과이다. וְעַד-절은 묵시가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해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더 강조한다. 이는 3b β 절에서 묵시가 반드시 이루어고 늦

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

- 33)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는 W. Dietrich, *Nahum Habakuk Zefanja*, 129 참조.
 34) וְיָבִיאָ/וְעַד가 עד와 평행으로 사용되는 예들을 따라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바꿔 읽거나(각주 29 참조) ועד를 עד로 고치거나(J. G. Janzen, “Habakkuk 2:2-4 in the Light of Philological Advances”, *HTR* 73 (1980), 53-78, 특히 54-57도 참조) ועד וְיָבִיאָ를 haplography로 보고 이를 וְיָבִיאָ(hi)로 변경해서 읽으려는 시도들이 있다(J. W. Haring, “»He will certainly not hesitate, Wait for him!«,” 372-382, 380 참조) 후자는 וְיָבִיאָ וְעַד를 전령으로 해석하고 그 주어로 삼는다.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명사문의 어순이 억지스러워진다.

- 2b Write and confirm a vision on the tablets,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3a For he will call [the] vision as a witness at the appointed time,
 he will testify at the end. He will not lie!
 3b He will certainly not hesitate, wait for him.
 He will surely come, he will not delay …
 4b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fulness.

또한 2인칭으로 불리는 예언자와 3인칭으로 불리는 전령의 관계가 불분명해진다. 2b절에서 전령은 ‘기록하고 확인하는 자’의 글을 갖고 달려가는데, 3b절에서 전령을 기다리는 자가 2인칭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현재 본문에서 2인칭의 사람이 예언자와 다른 자일 수 없다. 또한 וְיָבִיאָ(hi)를 ‘말하다’로 보고 ‘묵시는 (정해진) 끝에 말할 것’이라고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때는 묵시의 내용을 말하는 때가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때이다.

- 35) 그렇다고 그렇게 읽는 것의 옳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낱말의 의미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낱말이 나오는 문맥이다. 문맥이 의미를 생성하고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시 12:6에서 וְיָבִיאָ(hi)는 긴 형태의 미완료(PKLF)로서 ⁵-전치사 어구와 함께 관계사가 생략된 관계절을 구성한다.

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다시 설명된다. 따라서 이 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보인다.

- a 그렇다. 이 묵시는 아직 (오지 않은) 정한 때를 위한 것이며,
 끝(=실현의 때)을 향해 서둘러 갈 것이다.
- b 그것은 불발되지(=속이지) 않을 것이다.
- c 그것이 지체된다 해도
 - a 기다려라.
 - b 그것은 반드시 오고
 - c 늦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내용을 다른 말로 반복하는 bc는 하박국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묵시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묵시 실현을 다짐하며 그 때를 기다리라고 한다면, 강조점이 묵시의 내용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에 대한 반응과 태도로 옮겨진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이 4-5a절의 도입을 의미 있게 하며, 기다림의 관점에서 읽게 한다.

- (2:4) 보라, 부어올랐구나! 그것(=묵시)에도 그의 ‘목’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의인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 것이다.³⁶⁾
- (2:5a) 그런데 하물며 술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자라. 분별
 없는 자 그는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감탄문으로 시작되는 4절에서 새로운 주어가 도입되지만 어미대명사 ‘i’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그의 상태만 묘사된다. 그의 특징은 הַעֲלָה 와 הָאֵלֹהִים 이다. 이 둘은 접속사 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운율의 관점에서 양자는 분리되어 있고, 모두 שִׁשָׁנִּים 가 그 주어이다.³⁷⁾ הַעֲלָה 는 עָלָה 의 pu형(완료.3.단.여)으로 ‘부었다, 부어올랐다’를 뜻한다.³⁸⁾ רָשָׁרָשׁ (q)의 의미 영역 가운데 평

36) PK는 modal 용법으로 이해될 수 있고, 주어 의인은 그에 상응하게 ‘의인이라면’이라는 조건의 뉘앙스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7) הַעֲלָה 가 생략된 주어를 대신하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운율을 맞추고 있다. הַעֲלָה 위에 zaqep qaton 이 놓여 있다. הַעֲלָה 에 대해서는 GK, § 147b 참조.

38) BDB, 779 참조. HALOT, 860은 עָלָה 의 ‘어원을 어리석다, 무례하다’를 뜻하는 아랍어 ʿāla 이나 피하 지방층을 뜻하는 아랍어 ʿāla 또는 ‘불룩한 곳, 흙더미, 언덕’을 뜻하는 ‘off에서 찾는다.’

1QHab에서 הַעֲלָה 는 ‘두 배가 되었다’(כפל)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것은 הַעֲלָה 가 ‘부풀다, 붓다’는 뜻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W. H. Brownlee, *The Midrash Peshar of Habakkuk*, 122-124는 이를 바탕으로 ‘~위에 쌓여 있다’(to be heaped upon)는 뜻으로 새긴다. 그것은

평하다가 הַפְּלִיטָה 와 짝을 이루므로 $\text{לֹא־יִשְׁפָּטֶנּוּ}$ 의 의미는 ‘평평하지 않다’로 이해된다.³⁹⁾ 이 말들은 일차적으로 외형적 모습을 나타내고 비유적 의미를 갖는다.⁴⁰⁾ 따라서 שֹׁמֵם 는 마음이나 영혼보다는 목이나 목구멍으로 옹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⁴¹⁾

하지만 이것으로 4a절의 의미가 다 파악되지 않는다. וְיָ 의 ‘י’의 지시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וְיָ 의 ‘י’가 וְיָ 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동일하다면 וְיָ 는 의미 없는 말이 된다. 그의 네 폐쉬는 당연히 그 안에(וְיָ)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면, 본문에서 וְיָ 의 ‘י’가 지시할 수 있는 것은 1-3절의 יְיָ 밖에 없다. 이렇게 파악한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인칭 대명사 접미사가 יְיָ 를 받는다면, וְיָ 는 in spite of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에 따라 4a절과 1-3절의 연관성이 확보되고, 4a절은 유의미하게 이렇게 옮겨진다.

‘보라, 부어올랐구나! 그것(=목시)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이 평평해지지 곧 가라앉지 않았다.’⁴²⁾

이렇게 그 특징만 언급된 자는 누구인가? 현재 하박국 본문은 두 종류의 텍스트가 결합되어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1:13의 삼키다와 2:4의 목이 붓다는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는 의인들을 삼킨다고 하박국이

민 14:44에서 히필형으로 나오고 ‘감히~하다’를 뜻하며, 이 역시 ‘부어오르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된다.

8Hev XII gr에서는 이 낱말이 ΣΚΟΤΙΑ로 옮겨지는데, 이것은 명사 보다는 그 앞의 EYΘΕΙΑ가 εὐθῆς <곧은, 바른, 깨끗한>의 여성형인 것처럼 σκοτίος=σκοταῖος <어두운, 사악한, 숨은, 모호한>의 여성형으로 읽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הַפְּלִיטָה 이해가 그만큼 어려움을 반증한다.

39) שָׁפַט 는 평평하다, 평탄하다, 끝다, 바르다, 옳다, 정직하다 등을 의미한다(*HALOT*, 449R; *GB*, 326R 참조.)

40) J. A. Emerton, “The Textual and Linguistic Problems of Habakkuk II.4-5”, 11은 이와 어근이 동일한 형용사 שָׁפַט 나 명사 שָׁפַט , מִשְׁפָּטִים 또는 מִשְׁפָּט 가 윤리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근거로 동사도 윤리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들은 동사에서 전용된 의미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HALOT*, 450L 참조.

41) שֹׁמֵם 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목, 목구멍, 숨’이지만, 이로부터 파생된 ‘생물, 사람, 인격, 마음, 생명, 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HALOT*, 711R-713R 참조). M. A. Sweeney, *Reading Prophetic Books*, 297은 ‘목숨, 생명’으로 이해하고, 반면에 R. D. Haak, *Habakkuk*, 58-59는 שֹׁמֵם 를 식도로 파악한다.

42) הַפְּלִיטָה 와 $\text{לֹא־יִשְׁפָּטֶנּוּ}$ 는 AK(완료형) 형태로 미래 시점에서 본 상황을 나타낸다. 그것은 지금 말하는 자가 그 일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이미 일어난 것으로 말하는 형식이다(*GK*, § 106n 참조). 8Hev XII gr의 ΣΚΟΤΙΑ와 OYK EYΘΕΙΑ는 마음(ψυχή)의 상태를 나타낸다(각주 38 참조).

탄식했던 악인으로 볼 수 있다.⁴³⁾

이렇게 이해된 4a절은 그 악인에 대한 심판 내용이 아니라 묵시에 대한 ‘그’의 반응을 나타낸다. 그는 묵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반응은 묵시 실현의 때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해진 때가 오기까지 변함없는 그의 삶의 태도가 그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4b절의 אֱמוּנָתוֹ에서 인칭 대명사 접미사 ‘י’는 지시대상이 모호하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의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또 야훼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묵시를 가리킬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⁴⁴⁾ 그러나 3절이 묵시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거듭 강조한다면, 그것은 묵시를 읽는 자에게 그 실현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야훼에 대한 신뢰는 묵시 실현에 대한 신뢰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אֱמוּנָתוֹ가 바로 이 요구를 표면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י’는 목적격을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이해되고, אֱמוּנָתוֹ는 ‘그것에 대한 신뢰’(trust in it)로 옮겨진다.⁴⁵⁾ 이로써 1-3절과 4b절의 연관성이 표면적으로 확보되고, 4b절은 4a절과 마찬가지로 묵시에 대한 다른 태도와 반응을 나타낸다.

‘하야 베-x’는 ‘x로 산다’를 의미하므로 묵시 실현에 대한 믿음이 묵시 실현 때까지 기다리며 살게 하는 삶의 동인이 된다.⁴⁶⁾ 그러므로 의인이란 의인으로 이미 규정된 사람이 아니라 묵시의 실현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신실하게 삶으로써 의인임이 입증된다. 본문은 묵시 실현 이후 그 삶의 결과가 어떨지보다는 묵시 실현 때까지 그 삶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⁴⁷⁾

43) R. D. Haak, *Habakkuk*, 59.

44) 일단 ‘אֱמוּנָתוֹ’를 믿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두 경우는 결국 그 믿음을 묵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4b절은 문맥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진술이 되고 말 것이다. ‘אֱמוּנָתוֹ’를 신실함으로 이해하면, A가 의인인 경우 4b절은 일반적인 진술로 문맥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진다. A가 야훼일 경우에 대해서는 각주 45 참조.

45) 칠십인역이 어미대명사 י를 일인칭으로 고친 것은 י를 의인이 아니라 야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 때문일 수 있다. 이는 칠십인역이 ‘אֱמוּנָתוֹ’를 신실함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의 신실함’은 묵시 성취에 대한 야훼의 의지를 나타내고, 그것은 묵시가 실현될 때 입증될 것이다. 그리스어 πιστις도 믿음, 신실함(faithfulness), 신뢰성(reliability) 등의 의미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W.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662-664 참조.

46) J. G. Janzen, “Eschatological Symbol and Existence in Habakkuk”, *CBQ* 44 (1982), 394-414, 특히 395.

47)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112도 동일한 입장이다. אֱמוּנָתוֹ는 사 55:3에서처럼 삶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신 8:3에서처럼 단순히 살다를 뜻할 수도 있다. JPS는 אֱמוּנָתוֹ를 그의 충실함에 대해 ‘생명/삶으로 보상받을 것이다’로 옮긴다. 그러나 4-5a절은 3절에서 말하는 기다림의 문맥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묵시 실현 이후보다 그 이전의 삶

4a절과 4b절은 목시를 가리키는 대명사에 의해 앞단락과 연결되고, 이로써 텍스트의 응집성(cohesion)이 높아진다.

5a절에서도 목시 실현까지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는가? 5a절에는 목시를 직접 지시하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כִּי וַאֲפָּרָא가 앞구절과의 연관을 시사하고(앞 61쪽 참조), 더 나아가 이러한 구문적 연관성이, 아래에서 보는 대로, 구절 끝머리의 יָנָה וְלֹא יִרְוֶיךָ(2절)의 내용적 연관성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5a절은 1-4절과 함께 한 단락을 구성할 뿐 아니라 목시에 대한 또 다른 반응 형태를 보여준다.

‘목표에 이르다’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 יָנָה는⁴⁸⁾ יִרְוֶיךָ(달려가다)와 하나의 어휘장을 구성한다. 따라서 양자를 함께 읽을 때, יִרְוֶיךָ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임이 비로소 밝혀진다. 하지만 본문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추정컨대 그것은 목시의 내용 곧 정해진 때 있을 심판과 그로부터의 구원일 것이다.⁴⁹⁾ יִרְוֶיךָ와 יָנָה의 이같은 관련성은 5a절도 4절과 함께 목시에 대한 반응과 그 결과를 다루는 것으로 보게 한다.⁵⁰⁾ 그렇다면 5a절이 다루는 자는 목시를 읽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⁵¹⁾

이로써 문맥에서 5a절의 위치는 결정되지만,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그 이유는 5a절의 문장 구성과 요소들의 문법적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1QHab은 בִּנְיָיִן בִּנְיָיִן(부, 소유물, 재산)로 고쳐 읽는다.⁵²⁾ 그러나 MT 본문이 모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후대의 본문 개정을 선호할 이유는 없다.⁵³⁾ 본문을 달리 읽을 문법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⁵⁴⁾ 5a절은 악센트를 따라 כִּי וַאֲפָּרָא בִּנְיָיִן וְלֹא יִרְוֶיךָ로 분절된

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R. L. Smith, *Micah-Malachi*, 105는 이를 ‘shall not survive’로 읽는다.

48) HALOT, 678R. LXX도 이를 περαινω(완료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다다르다)의 미래형으로 옮긴다.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89, 94도 ‘성공하다’는 뜻으로 새긴다.

49) S. Schreiner, “Erwägungen zum Text von Hab 2 4-5”, *ZAW* 86 (1974), 538-542, 특히 540-541; M. H. Floyd, “Prophecy and Writing in Habakkuk 2,1-5”, *ZAW* 105 (1993), 462-481, 특히 473-475도 동일한 입장이다. M. A. Sweeney, 470도 참조.

50)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111, 116은 4절만 목시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5a절은 일반적인 진술로 간주한다.

51) NAS=NAS 2020도 יָנָה를 목표를 달성하다는 말로 옮기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그것은 5a절 나머지 부분을 다르게 이해하지만 יָנָה를 그렇게 옮긴 유일한 역본이다. 반면에 NAS 1995=1997은 stay at home, NIV는 is at rest로 옮긴다.

52) W. H. Brownlee, *The Midrash Peshar of Habakkuk*, 131.

53) 『새번역』, 『공동』 등. J. J. M. Roberts,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113.

54) J. A. Emerton, “The Textual and Linguistic Problems of Habakkuk II.4-5”는 이러한 가능성을

다. IQHab가 יהוה(부, 재산, 소유)으로 고쳐 읽는 까닭은 아마도 יהוה를 주어로 읽는 것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원래 본문일 יהוה가 문장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문법적 기능은 없는가? 그 가능성은 부사적 목적격으로 읽는 데 있다. 그러면 יהוה는 בּוֹנֵה의 원인을 나타낸다. בּוֹנֵה는 속이다 내지 기만하다 또는 배반하다로 옮겨지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등의 규범이나 법 또는 규정들과 관련하여 신의 없이/불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⁵⁾ 그렇다면 그는 묵시에도 불구하고 술 때문에 신실하지 못하게(faithless) 행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5a절은 4b절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묵시 실현에 대한 믿음이 신실한 삶을 낳는다면, 술은 신실하지 못한 삶을 결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는 5a절을 4절과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를 강화시킨다.

이 경우 יהוה בּוֹנֵה는 분사 בּוֹנֵה를 설명하는 동격이 되고, וְלֹא יָנָה의 주어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⁵⁶⁾

בּוֹנֵה를 수식하는 יהוה는 뽀내는, 교만한, 오만한, 거만한 등으로 옮겨지지만, 이는 술 때문에 신실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달리 읽은 가능성은 יהוה의 어원인 יהר가 be insane을 뜻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⁵⁷⁾ 따라서 이로부터 파생된 יהוה는 ‘분별이 없는, 제 정신이 아닌, 어리석은’ 등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 문맥에서는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면 5a절이 문제 삼는 사람은 곧 분별없는 사람 내지 제정신이 아닌 자로 술에 탐닉함으로써 목표를 잃는 자이다. וְלֹא יָנָה는 묵시에 대한 그의 반응의 결과를 암시한다. 그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지만, 다시 말해, 묵시의 실현을 기다리지만, ‘술’ 때문에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

이처럼 4-5a절은 묵시를 읽은 자들의 서로 다른 세 가지 반응 형태를 나타내고, 그에 따른 결과를 함축한다.⁵⁸⁾ 묵시를 읽는다고 사람들의 삶이 반드시 달라지거나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의인이라면 묵시 실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현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삶으로써 의인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IQHab을 따르고 있다. 그가 지적하는 대로 יהוה를 주어로 인식하는 시도들은 의미있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했다.

55) M. A. Klopfenstein, “בּוֹנֵה bgd to act faithlessly”, E. Jenni and C. Westermann, eds., *TLOT*, vol. 1 (Peabody: Hendricson Pub., 1997), 198-200.

56) 일종의 prolepsis로 볼 수 있다.

57) *KBL*, 370은 toll sein, be insane으로 새긴다. 또한 *HALOT*, 397L יהר가 제시한 가능성들 가운데 lose one's senses가 있음도 참조. 그 형태는 אַסִּיר 또는 אֲסִירָה에 비교될 수 있다(*GK* § 81a 1 참조).

58) 묵시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은 마 13:3-8, 18-23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하늘 나라에 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는 것에 비교될 수 있다. 이로부터 하박국의 문학적 영향을 추론해도 좋을 것이다.

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 삶이 바로 하박국에게 요구된 기다림의 삶이다.

3.2. 2:1-5a의 구조

1-5a절은 1절과 2-5a절로 구분되고, 양자는 응답을 기다림과 응답의 관계에 있다. 2-5a절은 정해진 때가 오기까지 하박국과 묵시를 읽은 자들의 예상되는 반응과 결과를 보여준다. 묵시에 대한 반응들을 중심으로 보면 2-5a절은 다음과 같은 교차법적 구조를 보인다.

- A 2 묵시 기록하라 — 읽는 자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 B 3 너(=묵시 기록자) — 묵시 실현의 때를 기다려라
- C 4a 목이 부어오른 자(이하는 묵시 독자) — 묵시에도 평평해지지(=가라앉지) 않는다
- B 4b 의인 — 묵시 실현을 믿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 A 5a 분별없는 자 — (목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같은 2-5a절 이해는 위에서 본대로 4절의 일부 인칭 대명사 접미사(3. 단.남)가 묵시를 지시한다고 볼 때 가능하다. 교차법적 구조는 C를 도드라져 보이게 하지만 그 강조점은 AA에 놓여 있다. 따라서 묵시에도 불구하고 야훼에게 돌아오지 않거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강조되고, 그 까닭에 6절 이하의 저주(יָחַ) 선언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⁵⁹⁾

4b절은 일반적으로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로 간주되지만, 2-5a절의 구조는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4b절을 그 짝인 2절과 함께 읽으면, 하박국에게 묵시 실현을 기다리라고 하는 야훼의 명령은 묵시 실현에 대한 의인의 믿음과 그것에서 비롯된 신실한 삶의 태도로 수행될 것이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⁶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를 요구한다. 기다림의 시간 곧 인내가 의인과 분별없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후자가 끝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내적 이유가 될 것이다. 이들의 차이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כִּי אֵינָהּ이다.

목이 부어오른 자에 대한 진술은 중앙에 위치하지만, 그것은 교차법 구

59) יָחַ는 장례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다(왕상 13:30; 렘 22:18; 34:5). 그 말이 예언자들의 고발에 사용된다(사 5:8-24; 10:1-7; 렘 22:13-14; 23:1-2; 겔 13:1-23; 34:1-6; 암 5:18-20). 그렇다면 예언서에서 그것은 죽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고, 따라서 화를 당해라, 죽어라, 저주받아라 등의 뉘앙스를 갖는다.

60) IQHab은 그 때가 의의 교사에게만 알려졌다고 주장한다.

조로 짜인 이 단락의 중심이 아니다. 그렇지만 첫머리의 ‘보라’(בֹּרָא)는 말 때문에 눈길을 끈다. 그 말은 기다리라는 3절의 명령과 대비되는 상황을 도입한다. ‘목’이 부어오른 자는 누구이기에 야훼는 그렇게 말하는가? 이 구절 자체는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박국을 탄식하게 만든 자들은 1:1-4, 13에서 짐작할 수 있고, 2:6b 이하에서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폭력과 고리대금, 억압과 술로 사람을 괴롭히는 부자 등 지배계층이 바로 그들이다. 하박국이 이들의 불의 때문에 탄식한다면, 야훼가 응답하는 2-5a절에서 그들과 관련된 언급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목이 부어올랐고 가라앉지 않았다’는 말로 묘사된다면, 이것은 불의와 부정으로 배를 불리고 권력과 폭력으로 억압을 일삼는 자들의 탐욕스런 태도가 묵시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내부의 ‘무질서’와 외세의 지배에 의한 이중고를 다루는(각주 7 참조) 현재 형태의 하박국은 이들의 완악한 태도가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준다. 1:1-4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갈대아의 침입은 유다 특히 억압과 폭력을 일삼는 지배층에 대한 심판이었고, 따라서 저들의 행태가 멈춰질 것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외세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고, 여전히 지배 권력을 유지하며 억압적 행태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짓밟는 그들의 행태는 묵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4a절은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6b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יָנִי**’가 선언된다. 5a절의 분별없는 자는 그들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들에게 저주선언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4. 믿음과 삶

위에서 본 대로 **בְּאֵמוּנָתוֹ**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로 옮겨질 수 있고, 묵시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4-5a절은 그 믿음이 그의 신실한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묵시는 미래의 일이므로 믿음과 연관되고 믿음은 그의 현재 삶을 구성하여 신실하게 살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은(야훼의 규례들과 법들을) 실천하면 그것들 때문에 살리라(레 18:5; 겔 20:1, 13, 21)는 것과⁶¹⁾ 같은 의미로 이해되지 않고 또 영원히 ‘사는’ 삶의

61) 레 18:5b는 **בְּאֵמוּנָתוֹ**-PK-x + AKWe-x 구문이다. 여기서 **בְּאֵמוּנָתוֹ**는 관계사로서 조건의 뉘앙스를 갖고, AKWe는 완료 연속법으로 앞의 PK를 이어가며 그 결과를 나타낸다. 서로 짝을 이루는 5aβ

의미로 이해될 수도 없다.⁶²⁾ ‘묵시 실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삶이 묵시 실현 곧 심판 이후의 삶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문의 주요 관심사일 수 없다. 신실한 삶은 묵시 실현의 때까지 기다리며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다.

신실한 삶이란 ‘야훼의 규례와 법을 지켜 실천하는’ 삶이다(사 1:10-20도 참조). 이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는 선언을 전제한다(레 18:1, 4, 5). 하나님의 구원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이 선언의 수용이 없으면(출 6:7 참조) 그 규례와 법의 실천도 있을 수 없다. 그 선언의 수용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 말한다면, 실천은 믿는 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믿음과 실천은 야훼-이스라엘의 관계가 갖는 두 측면에 상응하는 것으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나’ 야훼가 너희 하나님이다’는 선언에 ‘아멘’하는가? 그러면 그의 규례와 법을 지켜 실천함으로써 그의 백성임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묵시 실현에 대한 믿음으로 살 것이다’는 하박국의 말은 시간적 차원뿐만 아니라 관계의 차원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5. 나가는 말

하박국 본문은 앞에서 본 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니고 있어서 그대로 읽기 어렵지만, 문법적 가능성들과 지시 관계들 등이 재고되었을 때 통일된 본문의 새로운 모습이 드러났다. 2:4-5a는 2-3절의 묵시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 접미사(3.단.남)와 접속어 그리고 하나의 어휘장을 구성하는 낱말들을 매개로 2-3절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의인이 고난당하는 시대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과 29절은 ‘살리라’는 말의 의미를 제한한다.

그 규례와 법 때문에 살리라 vs 타민족의 성풍속을 따르는 자는 끊어지리라

‘**וְאַתָּה**’에 대해서는 GK, §76i 참조. B. A. Levine, *Leviticus*, JPSTC (Philadelphia: The Jewish Pub. Society, 1989), 119는 **וְאַתָּה** ... **וְאַתָּה**를 by pursuit of which로 옮긴다. 그러나 이것은 **וְאַתָּה וְאַתָּה**를 생략하고 **וְאַתָּה וְאַתָּה** ... **וְאַתָּה**만 고려한 번역이다. 그러므로 **וְאַתָּה וְאַתָּה**를 ‘야훼의 규례와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뉘앙스로 읽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레 18장 문맥에서 야훼의 규례와 법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6-23절의 성풍속 금지 규정들에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해두어야 한다. 레 18:5의 일반화는 오해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롬 10:5; 갈 3:11 비교).

62) 그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곧 야훼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살리라’와 ‘분노를 쏟다’가 대립되는 겔 20장에서도 확인된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묵시를 보여주고 기록하라고 하며, 묵시 실현의 때까지 기다림의 삶을 요구하는 한편, 묵시 실현에 대한 믿음이 모두의 것이 아님을 묵시에 대한 독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 세 가지 가능한 유형들을 통해 보여준다. 묵시 실현의 때는 어두운 시대의 끝이므로 그 실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진 사람 곧 의인이라면 그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며 끝까지 어둠을 견뎌오는 의인임이 입증될 것이다.

하박국과 관련하여 이제까지는 2:4b의 신학적 영향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묵시에 대한 반응 유형을 다루는 하박국은 문학적 형태와 사유의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박국 2:4-5a가 묵시를 읽은 자들의 반응을 말한다면, 이는 복음을 들은 자들의 반응을 다루는 마태복음 13:3-9, 18-23 등의 씨뿌리는 자 비유와 비교될 수 있다. 반응은 언제나 거부하는 자, 받아들이고 끝까지 지키는 자, 어떤 이유에서든 중도 포기하는 자 — 이는 복음서들에서처럼 더 세분될 수 있다 — 등 세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박국은 이런 의미에서 씨뿌리는 자 비유의 원형이라 할 수 있고, 또 로마서 1:17과 갈라디아서 3:11이 하박국 2:4b를 원문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 해도 이 구절이 바울 신학의 토대를 이루는 만큼 하박국은 바울의 신학적 원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룰 수 없었던 문제 하나는 2:2에서 기록하라고 명령받은 묵시(מִסְתָּרִים)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2-5a절의 구조는 6b절 이하의 저주 선언들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이는 추후에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Keywords)

하박국, 의인, 믿음, 묵시, 실천, 응집성.

Habakkuk, Faith, the righteous, Vision, Practice, Coherence.

<참고문헌>(References)

- 노세영, 『나훔, 하박국, 스바냐』,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2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박동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구약사상문고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Achtemeier, E., *Nahum-Malachi*, Interpretation, Atlanta: John Knox Press, 1986.
- Anderson, F. I., *Habakkuk: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5, New York: Doubleday, 2001.
- Brownlee, W. H., *The Midrash Pesher of Habakkuk*, MSSBL 20,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9.
- Brownlee, W. H., "The Placarded Revelation of Habakkuk", *JBL* 82 (1963), 319-325.
- Deissler, A., *Zwölf Propheten II: Obadja, Jona, Micha, Nahum, Habakuk*,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4/1986.
- Dietrich, W., *Nahum Habakuk Zefanja*, IEKAT, Stuttgart: Kohlhammer, 2014.
- Ego, B., et al., eds, *Biblia Qumranica: Volume 3B: Minor Prophets*, Leiden: Brill 2005.
- Emerton, J. A., "The Textual and Linguistic Problems of Habakkuk II.4-5", *JTS* 28:1 (1977), 1-18.
- Floyd, M. H., *Minor Prophets: Part 2*, FOTL 22, Grand Rapids: Eerdmans, 2000.
- Floyd, M. H., "Prophecy and Writing in Habakkuk 2,1-5", *ZAW* 105 (1993), 462-481.
- Haak, R. D., *Habakkuk*, VTS 44, Leiden: Brill, 1992.
- Haring, J. W., "»He will certainly not hesitate, Wait for him!«, Evidence for an unrecognized oath in Habakkuk 2,3b,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preting Habakkuk 2,2-4", *ZAW* 126 (2014), 372-382.
- Janzen, J. G., "Eschatological Symbol and Existence in Habakkuk", *CBQ* 44 (1982), 394-414.
- Janzen, J. G., "Habakkuk 2:2-4 in the Light of Philological Advances", *HTR* 73 (1980), 53-78.
- Klopfenstein, M. A., "בגד בַּגֵּר bgd to act faithlessly", E. Jenni and C. Westermann, eds., *TLOT*, vol. 1, Peabody: Hendricson Pub., 1997, 198-200.
- Levine, B. A., *Leviticus*, JPSTC, Philadelphia: The Jewish Pub. Society, 1989.
- McComiskey, Th. E., ed., *The Minor Prophets: Obadiah, Jonah, Micah, Nahum, and Habakkuk*, An Exegetical and Expository Commentary, vol. 2,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 O'Brien, J. M., ed., *The Oxford Handbooks of the Minor Prophets*, N.Y.: Oxford Uni. Press, 2021.

- O’Neal, G. M., *Interpreting Habakkuk as Scripture: An Application of the Canonical Approach of Brevard S. Childs*, SBL 9, New York: Peter Lang, 2007.
- Pardee, D., “YPH “witness” in Hebrew and Ugaritic”, *VT* 28 (1978), 204-213.
- Prinsloo, G., “Habakkuk 2:5a: Denouncing ‘wine’ or ‘wealth’? Contextual readings of the Masoretic text and 1QpHab”, *HTS T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2:4 (2016), accessed 25 January 2024 from <https://doi.org/10.4102.hts.v72i4.3576>.
- Roberts, J. J. M.,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 Robertson, O. P., *The Books of Nahum, Habakkuk and Zephan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 Schaper, I., “Exilic and Post-Exilic Prophecy and the Orality/Literacy Problem”, *VT* 55 (2005), 324-342.
- Schreiner, S., “Erwägungen zum Text von Hab 2 4-5”, *ZAW* 86 (1974), 538-542.
- Smith, R. L., *Micah-Malachi*, WBC 32, Waco: Word Books, 1984.
- Sweeney, M. A., *Reading Prophetic Books: Form, Intertextuality, and Reception in Prophetic and Post-Biblical Literature*, Tübingen: Mohr Siebeck, 2014.
- Sweeney, M. A., “Structure, Genre, and Intent in the Book of Habakkuk”, *VT* 41 (1991), 63-83.
- Sweeney, M. A., *The Twelve Prophets*, vol. 2, Berit Olam: Studies in Hebrew Narrative & Poetry,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Abstract>

Habakkuk 2:4-5a as Response to a Vision

Sang-Kee Kim
(Currently Unaffiliated)

Habakkuk 2:1-5a constitutes a literary unit, within which the verse 4b is to be explained. The Hebrew word אֲמוּנָה has a double meaning: faith and faithfulness, and its suffix (3ms) shows **three possible** referents: the vision, the prophet or Yahweh. Consequently, the verse can be variously interpreted, but its implication may be paraphrased in this way: man should live a life corresponding to the faith in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What is crucial for the comprehension of verses 2-5a is first the verbal expression in verse 2: לְמַעַן יְרוּץ קוֹרֵא בוּ (that he who reads it may run). This is the expected response of those that read the inscribed vision. In fact, the vision readers will be divided into three types as in verses 2-5a: the neck-swollen up, the righteous, and the thoughtless. This paragraph of a chiasmic structure does not turn on verse 4b, for that structure mostly aims at its end, which makes this unit carry over nicely into the woe oracles in verses 6ff.

The next is the nominal sentence in verse 3: עוֹד חֶזוֹן לְמוֹעֵד (The vision is yet for the appointed time). The thing that counts is the time between the vision and its fulfillment, during which the above mentioned three types come into view. What makes this clear is the word עוֹד. Therefore, this is not supposed to be changed into any other form.

Then comes the conjunctive phrase in verse 5a: וְאֵיךְ כִּי (and how much more), which reads verse 5a as the continuation of v.4. Such reading is supported by the correlation of יְרוּץ (he may run) and וְלֹא יָגִיעַ (but he cannot arrive).

The theological impact of so understood Habakkuk has been the primary focus of attention thus far, since Habakkuk was a source for Paul's theology, even though Romans 1:17 and Galatians 3:11 do not take 2:4b verbatim. But Habakkuk's treatment of the types of responses to the vision also has implications in terms of literary form and thought.

The reaction types of those who read the vision, referred to in 2:4-5a, can be

compared to the parable of the sower in Matthew 13:3-9 and 18-23, which deals with the reactions of those who hear the gospel, though their types are further subdivided in the Gospels. In this sense, Habakkuk can be regarded as the prototype of the parable of the sower.